2026. 05. 13. (수) ♥연기♥	관계와 숨은 의미	학번( ) 이름( )

[학습목표]

- 서브텍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, 대사 속에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진짜 의도를 설명할 수 있다.
- 상황과 관계에 따라 같은 대사도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.

***몸풀기1**

1)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
2) 하루 종일 연락 안 된 연인에게
3) 전날 싸운 뒤 어색한 분위기에서
4) 다른 친구랑만 놀고 밥 먹고 온 친구에게
5) 부모가 늦게 들어온 자녀에게
6) 상대가 누구랑 있었는지 궁금할 때
7) 수업이 끝나고 12시인 지금

***몸풀기2**

상황1) 물건을 팔려는 자와 깎으려는 자

상황2) 계약 성사시키려는 자와 거절하려는 자

상황3) 헤어지려는 자와 붙잡으려는 자

#. 숨은 의미 찾기

1) 등장인물의 관계를 통한 서브텍스트 파악

노신사,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.
부　인: 지금이 몇 신데 전화를 다 해?
노신사: 낭군님께서 마누라한테 전화하시겠다는데 시간이 중요한가?
부　인: 허이구 참. (A)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구 그려?
노신사: 마누라.
부　인: 엄마, 이 양반이 (B)오늘 뭘 잘못 먹었나, 목소리를 깔어.
노신사: (C)당신 처음 봤을 때 참 고왔는데.
부　인: 그때 이야긴 뭣하러 해, 꼬부랑 할머니한테.
노신사: 아녀, 우리 마누라는 늘 이뻐지.
부　인: 하하하. 그래 남편 눈에 이쁘면 됐지 뭐.
노신사: (D)고생 많았네.
부　인: 엄마야, 갑자기 진짜 왜 그러는데?
노신사: 그냥 우리 살아온 게 생각이 나서. 그래도 우리 잘 살았지?
부　인: (*)... 그럼. 우리처럼만 살라고들 해. 대통령도 안 부럽지.
노신사: 너무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.
부　인: (*)(미소가 번진다.) E)여보, 당신 아직도 팔팔해. 팔순 잔치엔 저기 카바레가서 흔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뭘.
노신사: 하하하. 춤은 당신이 정말 잘 췄지. 내가 당신 춤추는 거 보고 반했잖아.
부　인: F)시답잖은 소리는.
노신사: 부인, 가는 길이니까 좀 이따 내려오소.
부　인: 지금? 나 파김치 담그려고 다 벌여 놨는데?

A: (예시) 평소와 달리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, 무슨 일이라도 있나?
B:
C:
D:
E:
F:

(*)… :
(*)(미소가 번진다.) :

***활동1 – 서브텍스트 만들기**
-장면1) 희곡 <굿 닥터>

조수: 아, 사제님, 안녕하세요? 어쩐일로 여길 다 오셨습니까?
→
사제: 도저히, 아파서 참을 수가 없네..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견딜수 없을 정도야.
→
조수: 아.. 저, 정확히 어디가 그렇게 편찮으신가요?
→
사제: 어디라니? 죄다 쑤신다고 이빨만 아픈게 아니라, 내 입전체가 다 멍멍해.
→
조수: 아, 네,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나요?
→
사제: 한 10년은 된 것 같아!
→
조수: 네? 10년이요?
→
사제: 어제 아침부터인데 10년은 된거 같단 말일세. 아, 내가 아마 무슨 큰 죄를 지었나봐.
→
그래서 하느님이 날 벌하시느라고 온갖 아픔을 다 내리신 걸 거야!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?
→
조수: 아, 선생님께서는 마침 개인적인 일로 출타 중이신데요, 그동안에는 환자의 치료를 포함한 모든
→
일을 이.. 젊고 유능한 조수인 제게 일임하셨습니다.
→
사제: 하지만 자네는 의사가 아니잖아!
→
조수: 아, 뭐 면허증만 없다뿐이지,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. 내일의 의사인걸요!
→

-장면2) 희곡<올모스트 메인>

지미: 앉아. 본지.. 몇 달 됐지..
→
산드리: 어.
→
지미: ..몇 달이지? 한 달, 두 달, 하여튼 여러 달이나 됐네. 어쩌다 그랬지? 같은 동네 살면서 어쩌면 이렇게 오래 못본 거지?
→
산드리: 글쎄...
→
지미: 그게, 그 때, 니가 아침에 깨보니까 사라졌잖아. 그러고 처음 보는 거네.
→
산드리: 어.. 나 말이야-
→
웨이터: (등장) 두 분, 안녕하세요. 이렇게 구석에들 숨어 있으니 알 수가 있나요? 계신지도 몰랐어요.
→
(앞에 있는 버드 병 두 개를 보고) 여기 커플은 한 잔씩들 더 하실 건가요?
→
지미: 어, 그게...
→
지미: 우린..
→

/ 산드리: 아뇨! 일행이 아니에요.
→
/ 산드리: 됐어요!
→

-장면3) <자장면>

A: 자장면 배달 왔어요.
→
B 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오는 거야!
→
A: 왜 반말하고 그래요. 밀린 외상값이나 주지... 말은 더럽게 많아요.
→
B: 뭐? 너 지금 뭐라고 했어! 더럽게 많아요? (쥐어박으며) 이 쬐꼼한게...
→
A: 아야. 왜 때려요? 지금 자장면이나 배달한다고 이래도 되는 거에요?
→
B: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? 한 대 더 맞아 볼래?
→
A: 됐구요. 밀린 외상값이나 줘요. 저 빨리 가야하니까... 빨리 줘요! 빨리! 빨리!
→
B: 아이고, 치사해라... 그래, 외상값이 얼만데? 얼 만데 이 난리야!
→
A: 지난달부터니까... 총 합이... 이십 사만원이요! 빨리 줘요! 빨리! 빨리!
→

***활동2 - 창작(서브텍스트, 갈등상황)**

- 상황1) 이별

- 상황2) 고백

- 상황3) 재회